

책머리에

—而凡 崔鶴根 교수의 停年에 즈음하여—

而凡 崔鶴根 교수가 1988年 2月末로 자리를 물러나신다. 而凡 선생은 1956年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專任講師로 부임하시어 교수로 승진하셨다가 1970년에는 서울大學校 敎養課程部로 자리를 옮기셨으며 1975년부터는 서울大學校의 기구개편으로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에 소속되어 지금까지 後進養成과 國語學研究에 精進해 오셨다. 서울大學校에 勤續한 햇수가 33년이니 거의 한 평생을 서울大學校를 위하여 몸바쳐왔다고 말할 수 있다.

而凡 선생은 1987年 12月 3日 停年을 기념하는 告別講演 모임에서 農科大學 재직 시절에 담당과목인 國語 이외에 文化史, 心理學, 심지어는 농학원서강독까지 맡았던 경험을 술회하신 일이 있다. 지금과 같이 자리가 잡혀진 상황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초창기의 우리 大學이 겪었던 어려운 歷史의 한 斷面을 증언하는 것 같아서 듣는이로 하여금 깊은 감회를 자아내게 하였다.

而凡 선생의 專攻은 국어학 가운데서도 方言學과 系統論이다. 쉽게 말해 국어사가 전공인 것이다. 學窓時節부터 一貫된 이론과 方法으로 이 분야만을 외딴으로 정진해 오셨다고 말할 수 있다. 전공분야를 일정하게 지켜 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想起해 보면 而凡 선생의 學究態度는 우리 學界에 커다란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할 만하다.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는 지금까지 一石 李熙昇, 心岳 李崇寧, 白史 全光鏞, 城山 張德順 선생에 이어 而凡 崔鶴根 선생을 합하여 다섯 분의 停年退任敎授를 맞이한다. 그 사이 봉직 도중 자리를 옮기거나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없지 않으나 이렇게 많은 스승들이 정년으로 물러

[ii]

나섰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學科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져 있음을 뜻한다. 앞으로 우리 學科는 停年을 맞이하는 등의 기념할 일이 있으면 「冠嶽語文研究」를 紀念特輯號로 꾸미기로 합의하였다. 而凡 선생이 정년 기념특집호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冠嶽語文研究」 7집을 선생의 華甲紀念特輯號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사진, 年譜, 著作目錄은 신지 않았다. 이번의 기념행사를 계기로 하여 물러나가는 스승을 길이 되새기는 아름다운 學風이 지속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물러나시는 而凡 선생의 건강하심과 학문의 더욱 융성하심을 빌어 마지않으며 특집호에 원고를 주신 동료교수와 後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1987年 12月 28日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長 高 永 根

삼가 적음